

군산시, 5대 분야 공약사업 100% 완료

강임준 시장, 민선7기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계속추진 사업 26개 등 평균이행률은 42.2%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공약사항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강임준 시장 주재로 국과소 간부공무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다교 밝혔다. 지난해 10월, 5대 분야 169개로 확정된 공약사업은 100%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추진 중인 사업이 26개, 50% 이상 이행된 사업이 35개, 50%미만인 사업은 108개 사업으로 평균이행률은 42.2%로 나타났다. 이행 완료된 주요공약으로는 △공공

주택 분쟁조정위 상시기구화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 △맞춤형 복지 확대시행 △출산지원금 인상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평생교육 사업 운영 △군산 특례보증지원사업 확대 △농업 생산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근로자 처우개선 등이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1년이 고 용산업위지역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건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어려운 지역현실 강조보다는 그간 우리가

추진한 성과와 변화의 기쁨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군산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념식 등 이벤트성 행사는 지양하고 공약사항 점검과 청원조회, 언론브리핑을 개최해 시민과의 약속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난 25일 농관원 군산사무소는 신영시장 상인회와 원산지 표시 자율기반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관원 군산사무소,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신영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군산사무소(소장 이형수)가 최근 침체기에 있는 지역 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농관원 군산사무소는 신영시장 상인회(회장 송기섭)와 원산지 표시 자율기반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농관원 군산사무소 이형수 소장, 신영시장 상인회 송기섭 회장을 비롯해 농관원 군산사무소와 신영시장 상인회 관계자 전담명예감시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농산품의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제 교육 및 홍보 협조 등 원산지 표시 자율기반 구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농산품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으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시장 환경 조성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수시장 중 하나인 신영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의 확대와 홍보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농관원 군산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인과 만남의 날 및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매월 시장상인 대상 1:1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통해 신영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원산지 표시율이 높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제8대 익산시의회 개원 1주년 새로운 출발

의정활동 성과·향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한 기념사 발표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오는 7월 1일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26일 지역사회의 여론을 전해 듣고 활발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조규대 의장은 익산시의회의 지난 1년을 상생의회, 정책의회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로 평가하고, 민생의회 실현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익산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2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다수의 민생조례를 통과시켰고, '익산시 합라

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조속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등을 발표하며 지역 현안 문제해결에 노력하였다.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생산적 견제,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섰으며, 집행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였다.

시민 속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38개소의 주요현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도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을 펼쳐 왔으며,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등 활발한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였다.

조규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익산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점이 같은 동료의원님들과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덕분에 한 걸음 한걸음 바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하며, "익산시의회 25명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부지런한 손과 발은 기본이고,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정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농기센터, 농가 일손 돕기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바쁜 영농철을 맞아 지역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26일 시 농촌지원과 직원들은 감자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활용이 낮은 밭작물 재배 농가의 적기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성산면 산곡리 일원 2000㎡ 규모의 마늘과 양파 선별 및 포장 등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화재 골든타임 확보

재래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소방차 진입·출입이 어려운 재래시장에 신속하게 초기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호스릴방식)를 설치했다. 재래시장 지역은 통행로가 좁고 심야에 주정차된 차량과 빈집포등이 많아 화재 발생시 큰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재래시장 3곳 (남부시장, 익산장, 금마시장)에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다. 또 비상소화장치 주민 관리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방법 교육·홍보활동,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주변 주·정차 금지 지도·안내 강화,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사전 제거해 비상소화장치 사용 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귀농·귀촌은 익산' 지원정책 확대

빈집 임대료·주택 수리비 제공, 농업장려수당·교육도 실시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를 통해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과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귀농 초기 영농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의 빈집 임대료와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농촌 빈집 임대료의 경우 도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에게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2명 이상인 가족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올해는 23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농가주택 수리비도 만 70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택 1곳 당 1천만 원 이내에서 빈집 리모델링과 보일러, 지붕, 화장실 교체 비용을, 신축예정인 농가주택 설계비도 1곳 당 200만 원 씩 지원된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초기 필요한 저온창고와 농기계, 농기재 구매비용을 1개 경영체 당 2천

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초기 정착 비용의 일환으로 1년 동안 월40만 원의 농업장려수당도 지급된다.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만 40세 미만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기반 시설비용을 지원하며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훈련비도 지원된다. 대상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이나 40세 미만 청년이다.

이 밖에도 농업분야 창업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연2%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이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과정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익산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역 농업발전과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아동친화도시 조성 협력체계 구축

6개 유관기관 참여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산시는 26일 시청에서 아동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6개 유관·아동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익산시를 비롯해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소방서 등 3개 유관기관과 굿네이버스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 월드비전 전북지역본부 등 3개 아동전문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자료 제공 및 정보 공유',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각 기관들과 상호협력해 추진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익산시 모든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 보장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